

대구한의대, 새 인삼 감별법 개발

고려인삼과 중국산인삼 단시간내 분석 가능

고려인삼과 중국산 인삼을 단시간 내에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감별법이 개발됐다. 대구한의대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는 기존의 인삼 종간 유전자 감별법 보다 정확도와 감별 시간 등에서 탁월하게 앞선 일명 '파이로 시퀀싱(Pyrosequencing)을 이용한 유전자 감별법'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는 이와 함께 실험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도구 세트인 '키트(Kit)'도 개발했다.

인삼은 파낙스(Panax)속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지구상에 십여 종이 있지만 고려삼(Panax ginseng)과 서양삼(중국인삼: Panax quinquefolia)이 대표 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개발된 감별법과 키트를 이용하면 인삼 분말에서 DNA를 분리, 중합과정을 거친 후 분석하면 고려삼과 서양삼을 빠르고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를 주도한 한의학과 서정철(35) 교수는 "기존의 인삼 종간 감별법들은 정확도가 80~90%, 분석 시간은 빨라야 5~6시간이 걸렸지만 새로 개발한 감별법은 정확성을 95%이상 높이고

분석 시간도 1시간 이내로 줄인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고려인삼은 서양삼에 비해 고가에 거래돼 중국산이 국산으로 유통되는 일이 잦고 가루 형태로 가공될 경우 감별이 더욱 어렵다"면서 "새로 개발된 분석법이 인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는 인삼에 이어 당귀와 목통 등 10여 가지의 한약재를 분석, 감별하는 키트도 개발하고 있다.

한약재서 당뇨 합병증 억제물질 발견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조선의대 공동연구팀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당뇨병의 합병증을 막는 물질이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조선대 의대 공동연구팀에 의해 발견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재연구부 김진숙 박사팀과 조선대 의과대학의 공동연구팀은 4종류의 한약재로 만든 추출물을 당뇨 발병과 동시에 90일 간 투여한 결과 수정체, 좌골신경, 신장에서 당뇨병이 만성화될 때 생성, 합병증을 유발하는 최종당화산물과 소비톨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킨 것이 입증됐다고 29일 밝혔다. 또 당뇨유발군의 안구 혼탁 발병률은 종전 45.5%에서 27.3%

로, 현저하게 발병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약재 추출물이 합병증 유발인자의 생성과 활성, 핵으로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인 '한약을 이용한 당뇨병 합병증 질환 치료제 연구사업'의 중간 결과로 나온 것이다.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한 한약재 원천물질을 국내 특허 출원한 데 이어 작년 연말 국제특허도 출원했으며 핵심기술체계를 마무리한 뒤 내년 중반께 본격 기술 이전에 나설 계획이다.

북한은 약초 재배를 촉진하기 위해 약초 보호와 수매 질서 등을 규정한 약초법(5장51조)을 최근 제정했다고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밝혔다. 민주조선 최근호(3·2)는 약초법

한 약초를 많이 재배하고 자연산 약초를 잘 관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약초 한 뿌리를 캐면 두 세 뿌리를 심는 원칙을 지켜 약초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北 약초법 제정

약초자원보호와 고품질 약초 생산위해

제정 의미에 대해 "약초생 산의 전문성을 높이고 광범위하게 약초를 재배하는 등 고려의약품(한약) 생산과 치료예방에 필요한 약초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민주조선은 이 법의 제정 시기와 관련, "이번에 채택됐다"고만 밝혀 올해 들어 제정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지난해 8월 발행한 대중용 법전에는 모두 112개 법률이 수록돼 있으나 약초법은 없다. 약초법에 따르면 약초에는 약재로 쓰이는 식물의 뿌리, 껍질, 꽃, 잎, 열매 등이 포함된다. 약초법은 산지에서 한약 생산에 필요

국가기관은 약초에 대한 수요와 재배조건을 정확하게 계산, 약초재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전문적인 재배는 약초관리기업소와 해당 협동농장이, 일반재배는 기관·기업소·단체와 개인이 하며 약초재배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으로 약초재배의 달을 정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약초자원 보호구에서 시설물 건설 및 약초자원의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작물 재배나 가축 사육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외 약초의 보관 및 공급, 수출, 약초 수매, 감독 통제, 전문가 양성 등에 관한 규정과 외국 및 국제기구와 협조 문제도 담고 있다.

감귤, 비만·콜레스테롤 억제효과 탁월

연구소, 기능성물질 추출 상품화 계획

감귤이 비만과 콜레스테롤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는 제주대학교 수의대 이영재 교수팀과 공동으로 감귤껍질과 과육을 혼합해 건조시킨 감귤사료를 실험쥐에게 먹여 실험한 결과 이런 효과를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팀은 실험쥐 50마리를 대상으로 2개월간 감귤사료와 고지방사료를 섞어 먹인 쥐와 고지방사료만 먹인 쥐를 비교실험한 결과 혼합사료를 먹인 쥐가 고지방사료만 먹인 쥐에 비해 평균 체중은 14.5%, 복부지방 함량은 59%나 적었다. 고지방사료만 섭취한 쥐는 정상쥐에 비해 고환이 20~30% 줄어든 반면 이들 쥐에 다시 혼합사료를 먹이자 고환크기가 정상쥐의 85~95%까지 회복됐다. 또 혼합사료를 먹인 쥐는 고지방사료만 먹인 쥐에 비해 콜레스테롤 함량은 29%,혈압은 10%(145mmHg→130mmHg) 감소했다. 난지농업연구소 최영훈 박사는 "예로부터 감귤껍질은 한약재로 이용됐을 뿐 아니라 체중감량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과학적으로 입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내년에 추가 연구를 통해 이런 효과가 있는 기능성 물질을 추출, 상품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난지농업연구소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량의 감귤 껍질이 들어간 기능성 식품 '마말레이드'를 개발, 특허출원하고 특허가 나오는 대로 대량생산체계를 갖춰 농업 생산자 단체가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국, 알약으로 만든 차 선보여

최근 중국에서 마시는 차를 정(알약) 형태로 만든 제품이 개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베이징 농업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의 차 전문가인 관화쉬엔 교수가 연구 끝에 차 속의 유효성분을 추출하고 여기에 박하 등의 물질을 첨가해 차의 정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새로 개발된 차 정제는 차의 짧은맛을 제거하고 차 자체의 신뜻한 맛을 살린 것이 장점이다.



봄철 피부관리에 좋은 계절별 한방마사지 재료

태음인 - 울무팩

여드름피부 태음인은 울무팩이 좋다. 울무는 이노작용이 뛰어난 한약재. 얼굴 피부는 흡수력이 뛰어나 울무의 효과가 쉽게 나타난다.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좋다.
▶울무팩 만들기 ①우유 15ml에 울무가루 1~2차술갈을 넣고 잘 섞는다. ②여기에 꿀 한 숟갈을 더한다. ③폼 타입으로 된 저자극성 클렌징으로 꼼꼼히 세안한 다음 울무팩을 얼굴에 바르고 15~20분 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낸다.

소음인 - 인삼팩

소음인 피부에는 인삼이 좋다. 인삼은 모세혈관의 혈행을 촉진시켜 세포 재생을 도와주며 피부 탄력을 높여 준다.
▶인삼팩 만들기 ①인삼 잔뿌리(미삼)를 준비한다. ②생수 1l에 인삼을 넣고 약한 불에 1시간 정도 달인다. ③물이 반 정도로 줄면 식혀서 거즈로 걸러 냉장보관한다. ④인삼수에 황기(한약재의 일종) 분말과 꿀을 개어 얼굴에 골고루 바른 뒤 물로 씻어낸다.

소양인 - 녹두팩

소양인 피부에는 녹두팩을 추천했다. 빛으로 인한 광(光)노화를 막고 리프팅 효과가 뛰어나다고 한다.
▶녹두팩 만들기 ①녹두를 믹서기로 갈거나 미용용 녹두 가루를 준비한다. ②녹두 1차술갈을 밀크 타입 화장수 15ml 정도에 잘 갠다. ③얼굴에 골고루 발라 20분 뒤 미지근한 물로 씻어낸다. 검은 깨 가루를 섞으면 효과가 좋다.

태양인 - 해초팩

태양인 피부에는 보습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보습과 피부 진정에 효과가 있는 해초팩이 태양인과 궁합이 맞다. 한약재인 감초를 섞으면 미백효과까지 더할 수 있다.
▶해초팩 만들기 ①생수 한 컵에 해초가루 2차술갈을 넣고 열번 정도 짓는다. ②8시간 동안 실온에 두면 걸죽한 풀처럼 변한다. ③부드러운 팩 전용 붓으로 발라준다. 남으면 반드시 냉장보관.

